
신어와 언어 ‘밖’

-언어 주체의 다양성과
의미 설정을 중심으로-

김진해 ·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신어에 대한 욕망

스위스의 유명한 소설가 페터 비셀의 소설 『책상은 책상이다』(1969)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렇게 한탄한다. “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하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또 의자는 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어째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 뒤로는 아예 공책을 하나 사서 침대는 사진이라고, 책상은 양탄자라고, 의자는 시계라고, 신문은 침대라고, 거울은 의자라고, 시계는 사진첩이라고, 옷장은 신문이라고 부르며 마침내 모든 단어를 다르게 부르게 된다. 결국 이 소설의 주인공은 우리의 예상대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

어 버린다.

그렇지만 기존 언어의 진부함과 고루함에 싫증이 났던 주인공은 명명의 권한을 (과거의) 사회가 아닌 현재의 자신에게 부여한 사실에 쾌감을 느낀다. 이러한 그의 이상한 실험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왔던 ‘언어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왜 꼭 책상을 책상이라 불러야 할까? 언어학에서 말하듯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책상은 책상일 따름이지 다르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으박지르면 모든 것이 평정되는 문제인가? 신어를 둘러싼 문제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처럼 기존의 언어를 모두 바꾸려는 시도를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은 흔한 일이다. 범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신어는 복수(複數)의 개인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자신만의 신어(self-coin)’ 과정을 거쳐게 된다. ‘자신만의 신어’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동전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동전을 만들어 쓰듯이 혼자서 말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신어는 이렇게 개별자가 기존 어휘 체계에 없는 기표를 상상해 내는 것이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당연한 결론을 조금 뒤로 미루어 두면, 그동안 언어학에서 등한시했던 주체(개별자)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렇게 발견된 주체는 기존 어휘 체계의 충실한 이행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명명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2. 신어의 신화 - 신어는 사회를 반영한다?

우리의 언어 이해는 20세기 초반 서구의 과학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차갑게 물상화되었다. 언어는 순수하며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를 거룩한 존재로 신화화하며, 언어와 세계와의 긴장관계를 망각하게 만든다. 한편으로는 언어만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에서 역사와 사회를 빼 버렸다. 인지언어학은 언어 속에 녹아 있는 사회와 문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개인의 신체와 균질적인 문화로 축소 수렴해 버렸다.

신어의 생성 과정을 보는 가장 간편한 방식은 자연 발생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문금현 1999: 5~7). 여기서 전자는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명명이고, 후자는 국어 순화 등 언어 정책적 차원의 명명이다. 이러한 구분법은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사회적 본성으로부터 도피하는 데 동원해 온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언어 전체가 사회적 맥락과 전면적으로 잇달아 있음을 회피하고, 몇몇 예외적이고 불순한 단어들만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만 별도 관리하면 언어의 순수성은 유지된다. 그렇지만 명명은 특정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명명 행위는 개체의 욕망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생성 주체의 유형적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신어는 모두 ‘인위적’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실’에 대해 철저하리만큼 무관심하고 불개입 선언을 하는 언어학자들도 ‘신어’를 다룰 때만큼은 ‘현실’을 거명하고 그 속에 반영된 사회를 해석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어가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이다. 이렇게 언어가 사회를 반영한다고 보는 관점은 언어와 사회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언어만의 폐쇄적이고 자율적인 논리가 있고, 가끔 주변부에 있는 때 묻은 요소들이 예외적으로 사회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그 첨병으로 신어가 거명된다.

그렇지만 언어와 사회는 배타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여 둘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순수한 언어가 따로 있고, 사회와 연결되는 ‘불순한’ 언어가 한편에 따로 있다는 관점은 옳지 않다. 언어 자체가 역동적인 사회적 관계이며, 언어 놀이의 현장이다. 신어가 사회를 반영한다면 구어(舊語)도 사회를 반영한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모든 기호는 저 홀로는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쓰임이다.” 쓰임은 바로 구체적 맥락인데, 이 맥락은 언어적 맥락·비언어적 맥락으로 엄격하게 양분되지 않는다. 언어는 구체적 맥락에 의해서 의미가 획득되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에서 동떨어진

본유적 의미란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맥락이 이동함에 따라 의미도 시슬처럼 엮이면서 달라지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놀이(language game)’와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놀이’라고 부르는 단어들 모두에 공통된 어떤 ‘본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면서, 어떤 공통된 본질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가족 유사성’을 가질 뿐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가족 유사성은 “공통된 본질이 없다면 모든 것은 서로 무관하며, 그래서 우리는 의미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식의 불가지론적인 회의주의에 빠지자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인접한 요소들끼리 맞물려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는 개방적이면서도 구조적 관련성을 갖는다. 인지언어학이나 담화 이론에서는 ‘언어의 은유적 본성’을 재발견했다. 언어는 늘 옆으로 튀려고 기웃거린다. 그 기웃거림을 촉발시키는 것은 기표 자체가 아니라 기의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다. 즉 주체의 문제이다.

비트겐슈타인이 ‘가족 유사성’ 개념을 제시하면서 들고 있는 비유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 크다. “실의 강도는 어떤 하나의 점유가 그 실 전체를 관통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점유들의 겹침에 있는 것이다.” 점유의 겹침은 바로 의미란 구체적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맥락의 다양성이 의미의 강도를 정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시, 신어는 사회를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가 사회적 맥락에서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다양한 주체들 간에 역동적인 밀고 당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어에는 기존 권력의 의지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약소수자(弱小數字)’의 응전도 있는 것이다. 신어를 단순히 사회의 반영으로만 보아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 작용(signification)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구어가 공유된 의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미로 해석되도록 한다면, 신어는 누군가가 생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던져 놓으면 먹이를 향해 모이는 잉어 떼처럼 이해 당사자와 관심 있는 자들이 몰려드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맥락에 따라 바뀐다는 점에서 알튀세르의 ‘과잉

결정'이라는 개념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언어 놀이'에서 모든 단어나 문장의 의미는 항상 '과잉 결정'되며, 그 때문에 '의미' 그 자체를 절대로 고정된 형태로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진리는 오직 구체적 맥락 속에서 과잉 결정된 형태로만 나타난다. 신어는 언어가 역동적인 의미 작용이자 의미 설정의 각축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신어는 현장에서 싸우는 전사들이 쟁투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도드라질 뿐이다. 신어는 기존 어휘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의미 설정을 둘러싼 긴장의 강도가 매우 강할 뿐이다.

3. 의미 설정을 둘러싼 긴장

신어의 생산은 생소한 기표 자체도 문제이지만, 기표에 어떤 의미를 설정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의미 설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단순히 사물에 일련번호를 달듯이 중립적이지 않다. 의미는 대리석처럼 고정되지 않고 늘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재미 삼아 만들었든, 정치적·상업적 의도로 만들었든 '자신들 편에 의미가 놓이도록' 하려는 의미 싸움을 벌인다. 그것을 담론이라 부르든, '의도'라 부르든, 권력이라 부르든 명명의 방식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인받고 싶어 한다. 마치 추운 겨울 방 안에서 자기 쪽으로 이불을 끌어당기듯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욕망이 언어 속에 투영된다. 기존의 어휘(기표)에 새로운 의미(의)를 부여하려는 것과는 다르게, 신어는 아예 새로운 기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설정을 둘러싼 긴장은 더욱 첨예화된다.

언어를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한 글이 드문 우리 상황에서 풍부한 자료와 치밀한 논리로 우리 시대의 언어 문화를 비판한 김다은의 글은 단연 돋보인다. 그는 머리말에 이렇게 말한다.

신조어가 만들어질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이동이나 조정이 있다. 신조어의 생산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남성 권력, 예술 권력, 돈 권력, 상

술 권력, 고용 권력 등이 있고, 디지털 문화가 권력으로 새로 자리 잡으면서 기득권과 야합하기도 한다. 가령, 룬살롱에서 여성을 터치하는 행위인 ‘피아노’는 남성 권력이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신조어지만, ‘개똥녀’는 남성 권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권력이 합쳐져 여성을 비하하고 조롱하던 신조어였다. ‘찌질이’는 일진회에서 구박 받거나 폭력을 당하던 허약한 학생들이 원조이지만, 나중에 디지털 권력과 예술 권력에 의해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한다(김다운, 2006: 8).

신어 자체의 내적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어를 생성하는 사람, 또는 전체로서의 개인(대주체)이 어떠한 사회적 역관계와 문화적 좌표에서 대상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김다운의 말처럼 신어에는 남성, 권력, 자본, 순혈주의, 외모 지상주의 등 치명적인 사회 모순의 중심이 득세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항하여 새로운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분투가 눈물겹도록 미약하긴 하지만 언어의 본질을 훨씬 명증하게 꿰뚫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어를 둘러싼 긴장을 잘 보여 주는 예를 하나 보자. 최근 ‘코시안’이란 단어가 자주 쓰이고 있다. ‘코시안’은 ‘Korea(Kor-) + Asian(-sian)’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신어이다. 이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코시안’이라는 기표 자체 때문이 아니다. 원래 ‘코시안’은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로,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점점 ‘튀기’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농촌 총각과 아시아계 여성, 혹은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 사이에 생긴 자녀를 뜻한다. 게다가 일본이나 중국계보다는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출신의 배우자에게서 낳은 자녀로만 한정되어 쓰였다. 이에 대해 관련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조센진(朝鮮人)이 편견을 담은 용어가 된 것처럼 ‘코시안’도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2006년 3월 한 지방 자치 단체에서 현상 공모를 통해 고유어 ‘온누리’와 사람을 뜻하는 ‘-ian’을 합친 ‘온누리안’으로 바꾸었다. 이제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더 남았는가. 바로 호명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있었다. ‘튀기’가 ‘코시안’이 되고, 다시 ‘온누리안’으로 바뀌는 동안 그런

이름으로 호명당하는 이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코시안’이란 단어가 발화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 세우게 된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결혼이라는 일상적인 제도가 새로운 호명으로 인해 주목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것이 신어의 힘이자 명명의 힘이다. 호명의 힘, 명명의 힘은 막강한 것이다. 차별적 신어 ‘코시안’을 비차별적인 ‘온누리안’이라는 신어로 대체한다고 해서 이미 굳건하게 그어져 버린 의미 경계선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의 대상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코시안’이든 ‘온누리안’이든 이런 신조어의 사용을 반대한다. 그냥 ‘코리안’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신조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국제결혼 특히 동남아 여성과 결혼한 가정에 대한 차별이다. 미국인과 결혼한 가정에는 어떤 이름도 규정하지 않으면서, 유독 동남아 계열 여성과 결혼한 가정에만 특정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2세들에게 별칭이 부여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한국 베트남 가족 모임’에 게재된 서명 양식.)

그들은 신어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국제결혼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도 유독 아시아계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 혹은 농촌 총각과 아시아계 여성 사이에 생긴 자녀·만’을 명명하고 있는 의도를 간과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명칭으로 자신들을 부르는 그 속에는 가난한 이주 외국인에 대한 분할 의식이 개입되어 있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편견과 따돌림 이전에, ‘코시안/온누리안’이라는 신어를 통해 언어적 분할과 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을 호명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주목받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폭력적이다. 그런 점에서 개인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처지들이 ‘말 한마디’로 망각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호명당한 ‘된장녀, 개똥녀, 노빠, 찌질이, 빨갱이, 수구꼴통, 386’ 들도 폭력의 희생자들이다.

몇 년 전 인종 차별적인 ‘살색’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달라고 이주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농성을 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한 약속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살색’의 변천 과정은 이렇다. 외국인 인권 단체를

이끌며 ‘살색’의 차별성을 알고 있던 어느 목사는 크레파스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하는 건 인종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부터 이 색을 ‘연주황’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그의 딸과 사촌 등 어린이 몇 명은 새로 바뀐 ‘연주황’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여서 어린이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며 쉬운 ‘살구색’으로 바꿔 달라고 진정서를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다시 받아들였다.

‘살색’, ‘연주황’, ‘살구색’이란 낱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그저 투명해 보인다. 살색이나 살구색에 굳이 설명을 단다면 하늘색, 오렌지색, 쥐색, 밤색처럼 ‘한국인’의 살의 색을, 그리고 살구 열매의 색을 비유적으로 적용하여 만든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체의 차이에 따라 의미 설정에 차이가 났고,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산림청에서 이 병에 ‘소나무 에이즈’라는 명칭을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명시해 놓았었다. 전염성이 강한 데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죽고 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어 대중들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부른 것이다. 이에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소나무 에이즈’는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키고 에이즈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신어 폐기를 요구했다. 한동안 ‘장애인’을 친근하게 표현하기 위해 ‘장애우’라고 불렀는데, 이에 대해 ‘우리도 당당한 사람인데 왜 돌볼 대상처럼 장애우냐? 그러한 온정적 신어는 필요 없다’고 하는 장애인단체의 항의를 받아 요즘에는 장애우라는 신어를 폐기하고 다시 장애인이라는 구어로 회귀했다. 2004년 정부는 「건강가족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전국에 55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 법이 소위 ‘정상’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반발하였다. 이에 2006년 「건강가족기본법」은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건강가정사는 ‘가족지원사’로, 가정봉사원은 ‘전문돌봄요원’으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이는 동일한 ‘가족’에 대한 정의의 차이 때문인데, 단순히 이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신어는 그저 친절함이나 선의만으로 사람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호명하는 주체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언어가 문제인 것은 언어의 내적 구성 방식 자체 때문이 아니다. 언어와 사회가 어떤 긴장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따질 때 언어는 사람에게 유효하며 주목받을 수 있다.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새터민(탈북이탈주민)에게 남한 언어는 어찌 보면 소통에 장애가 되는 신어투성이일지도 모른다. ‘살색’의 인종 차별적 성격을 ‘연주황’으로 바꾸면 어린이를 언어적으로 차별하는 것이지만, ‘살구색’으로 바꾸면 이는 다시 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는 또 다른 ‘어려운’ 단어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어는 태생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편향성을 갖는다.

결국 누구의 관점에서 신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신어의 범위와 내용은 달라진다. 어떤 의미 설정에서 명명되느냐에 따라 참여한 대립을 낳기도 한다. 의미는 비균질적이다. 사회적 상호 작용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통은 늘 불완전하다. 온전한 의미 전달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언어 공동체는 유일무이한 랑그를 공유하며 거기에서 일탈적 행동을 하는 소수의 부작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언어는 복수성과 잡종성을 본성으로 성립한다.

4. 신어의 유포 - 인터넷 소통의 직접성

이전 시대의 신어 생산자는 주로 기자, 정치인, 지식인, 국어 순화 운동가, 기업체, 연예인 등 이른바 ‘공신력’ 있는 사람이나 기관들로 한정되었다. 그들이 만들면 일반인들은 그 말을 따라 쓰거나 아니면 안 쓰거나 하는 수동적 위치였다. 자극 주체와 반응 객체가 잘 구분되었다. 위계적이고 일방적이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사적 개인의 능동적 제안이 공적 기관의 제안보다 더 많은 호응을 얻는 경우도 흔해졌다.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사적 영역에서 만들어진 신어는 불안하다. 단어 구성 요소의 역사(어원)를 고려하지 않고 순간적인 오타를 그저 ‘재미’로 올리고 깔깔대며 열광한다. 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즉자적으로 명명하여 한국어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인터넷 시대는 문자화 시대 이전의 구술 문명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구술 문명은 입과 귀를 이용한 ‘소리’의 시대였지만, 인터넷 공간은 코드화된 문자화의 시대이다. 소리는 잡히지 않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소리에 담기는 의미나 의미를 담은 소리는 대화 당사자에게 ‘공통되고, 공유되고, 동일하다’고 상상된다. 기표의 어그러짐은 ‘의미(기의)’의 전달만 보장된다면 충분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회성을 갖고 있던 소리는 인터넷에는 끈질기게 코드화된다. 코드화된 구술적 기표는 새로운 일탈의 대상이 되었고 한글/한국어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모험의 대상이 되었다. 자판을 두드려 글/말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 그것은 입말에서 글말로 순식간에 양질 변화해 버린다. 구술에서 기록으로 바뀐다. 정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했던 상황성·가변성은 누가, 언제, 어떻게 ‘입력(=발화)’했는지 낱낱이 기록된다. 발화한 시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다른 누리꾼들은 그 기록을 독해하면서 ‘과거의 대화’에 현재적으로 참여한다. 시간은 흐르지만 현재로 차곡차곡 쌓이며 점점 주름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 속에 ‘재미있거나 새로운’ 일탈이나 명명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전방위로 유포시킨다. 하나의 새로운 표현이 골방에서 광장으로 대중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반나절이면 족하다.

개인적 차원의 발화가 자꾸 기록(코드화)되다 보니 골방-광장, 사적 소통-공적 소통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불필요해진다. 인터넷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나 뿌리털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 관계망의 눈을 만드는 리좀형(rhizome)의 존재가 된 것이다. 리좀형은 고구마나 파, 대나무처럼 수평적으로 뻗어 나가는 뿌리 식물의 증식 형태이다. 이들은 주축 뿌리 즉 중심이 없는 다양체이다. 동일성을 공유하는 중심이나 센터는 거부된다. 끊임없이 관계를 생성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신어의 거대한 생산과 유포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꾼들을 언어의 파괴

자라고 지나치게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 누리꾼들이 모국어를 훼손하고 세대 간 소통의 불가능 상태를 야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속도와 양의 문제이지 언어의 본성에서 벗어난 현상은 아니다.(그리고 신어를 만들어 유포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여전히 언론 기자, 브랜드네이머(brand namer), 언어 순화 정책을 펴는 국립국어원이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 펼치고 있는 ‘우리말 다듬기 사업’(www.malteo.net)은 대량의 신어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든 신어를 유포하는 과정은 한국어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온 누리꾼들의 그것과 다름없으니 역설적인 벤치마킹이라 하겠다. 그동안 우리에게 비친 판로 집단의 부정적 성격은 바로 준비는 몰래하고 그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나서 대중이 전적으로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한번 뭔가를 고쳤으면 그뿐이고, 두툼한 ‘순화 자료집’을 내면 그뿐이었다. 여러 후보를 만들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도, 대중적으로 어떻게 유포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자기 만족적이고 위압적인 선언에 그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왔던 정책적인 언어 순화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인터넷 소통의 직접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금은 신어의 유포가 인터넷이란 매개를 통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검증되고 추인 받고 있다.

국립국어원에 실린 신어 목록들 대부분은 ‘정제’되어 있다. 신어 조사의 대상이 주요 일간지 기사와 방송 뉴스 대본이기 때문이다. 일간지 기사와 방송 뉴스 대본에 ‘허걱’, ‘즐’, ‘대략 난감’, ‘열공’, ‘뽕’, ‘아햏햏’, ‘므훗’, ‘쌩얼’, ‘안습’, ‘오나전’(‘완전’의 오타)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말 줄이기 도사인 누리꾼들이 ‘지대’(제대로), ‘훈남’(외모가 아닌 다른 매력의 훈훈한 남자) 등 두 글자로만 표현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예들도 실리기 어렵다. 이들의 내적 구조가 기존 어휘 체계나 결합 규칙을 위반한다고 해서 신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일반인들에겐 상당히 생소한 전문어들이 등재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거기에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조합하여 만든 경제 용어, 정치 용어들이 대부분이다. 비록 한자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고 그 의미를 추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들을 신어의 반열에 올려놓고, 누리꾼들이 열심히 만들어 내고 상당한 정도로 공유되고 있는 단어 중 상당수는 ‘임시어’, ‘유행어’,

‘비속어’라는 딱지를 붙여 제외된다. 네이버 오픈사전 ‘유행어·신조어’방에는 실시간으로 주변에서 떠도는 신어를 발굴하여 뜻풀이와 예문까지 제시하면 다른 누리꾼들이 거기에 평점을 매긴다. 누리꾼들은 쥐들이 파는 구멍처럼 어디로 뿔지 알 수 없지만, 중심에 의한 통체나 잘 짜인 설계도에 의존하지 않고 의미의 관계망들을 확장하고 있다.

5. 신어의 효과 - 언어의 ‘외부’ 발견

신어는 사람들이 기존어로만 짜인 의사소통 체계로 편안하게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기표는 들리지만 그 기의를 알지 못할 때의 답답함, 그리하여 기표에 대한 의미를 되물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대화 참여자를 기존의 안정적인 어휘 체계 밖에 자신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낯선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만든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어휘 체계, 나와 다른 경험 체계, 나와 다른 의미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언어는 100%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불-소통의 이중나선을 통한 불완전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신어는 복수의 어휘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 줌과 동시에 언어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준다. 언어의 배면에는 항상 ‘외부’가 있다. 그 외부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복잡하게 꼬이고 얽혀 있는 삶의 관계이다. 의미는 이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각각의 의미는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통해 드러난다. 맥락은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것은 통전적(統全的)이다.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과 말을 생산하는 주체의 위치에 따라 변한다. 언어는 고정된 규칙의 체계, 잘 짜인 구조가 아니라 치열하게 경쟁하는 존재이다. 신어는 외부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는 귀뚜라미 같은 역할을 한다.

신어가 언어의 외부를 발견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본다면, 신어의 정반대편에 있는 상투어(굳은 표현, 속담, 통념, 스테레오형 등)도 언어의 ‘외부’를 보여 준다. 선입견과 편견의 덩어리일지라도 상투어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수의 이름으로 무의식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상투어 속에 굳게 새겨진 언어의 ‘외부’와 신어에 새롭게 새겨진 언어의 ‘외부’는 주체들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어 가는 동일한 언어의 ‘외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언어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를 언어의 감옥에 집어넣거나, 언어학자들처럼 언어의 장벽 뒤로 스스로 몸을 숨겨 버려서는 안 된다. 언어의 배면에 잇닿아 있는 외부를 만져야 한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차별적 통념이 계속되는 한 그것을 ‘반영’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언어적 전투는 끊임이 없을 것이다. 사회적 단절을 언어적 문제로 모두 환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계급 격차, 교육 격차, 빈부 격차를 언어의 문제로만 수렴하지 말라. 신어는 이러한 언어의 경쟁적 속성을 최전선에서 보여 주고 있을 따름이다.

신어는 의미의 전쟁터이다. 새로운 의미 설정을 하려는 사람과 그 의미 설정에 도전하는 사람이 뒤엉켜 싸운다. 기존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유포시키려 하는 사람과 권력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각축장이다. 신어는 의미의 놀이터이다. 새로운 명명으로 대상에 짓궂게 금을 긋고 깔깔대며 달아난다. 부당하게 그어진 금을 지우기란 쉽지 않다. 지우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난다. 신어는 권력을 정당화한다. 신어는 권력에 저항한다. 그래서 신어는 언어이고 사회이고 삶의 역동적 관계이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5), “2005년 신어”, 서울: 국립국어원.

김다운(2006),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 서울: 작가.

뤼스 아모시·안 에르슈베르 피에로 저, 조성애 역(2001), “상투어”, 서울: 동문선.

- 문금현(1999), ‘현대 국어 신어(新語)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집, 서울: 국어학회.
- 미우라 노부타카(2005), ‘식민지 시대와 포스트식민지 시대의 언어 지배-언어 제국주의의 발견 원리’,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옮김(2005),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돌베개.
- 박용찬(2004), ‘신어와 표준어’, “새국어생활” 14권 1호, 서울: 국립국어원.
- 송민규(2003), ‘사이버 언어 연구의 몇 문제’, “우리어문연구” 21호, 우리어문학회.
- 송원용(2005), ‘신어의 어휘부 등재 시점 연구-어휘 지식 유무 검사를 통한 검증-’, “국어학” 46집, 국어학회.
- 시정곤(2006),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호, 한국어학회.